

## 국내 위암 환자 간호중재 연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임효남, 이미향, 김두리\*, 이경화, 양선이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Nursing Intervention Research for Gastric Cancer Patients in Korea

HyoNam Lim, Mi-Hyang Lee, Doo Ree Kim\*, Kyunghwa Lee, Sun-Yi Yang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진행된 위암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 연구의 특징을 파악하여 추후 위암 간호중재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중재연구 8편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한 결과,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시차설계가 6편,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가 2편이었다. 중재 내용은 질환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대부분이었고, 영양교육, 운동요법, 마사지 및 정서적 지지가 시행되었다. 국내 위암 환자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결과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간호중재 효과를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중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환의 시점에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중재내용을 개발하여 임상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intervention research for gastric cancer patient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s a result of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f eight interventional studies conducted on gastric cancer patients in Korea, six pre-post lag designs for inequality controls and two before-and-after experimental designs for randomized controls were found. Most of the interventions involved providing disease-related information, nutrition education, exercise therapy, massage, and offering emotional support. The effects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gastric cancer patients in Korea differed depending on the outcome variables. Intervention strategies need to be strengthened to allow clear conclusions to be drawn about the effects of various nursing interventions. To confirm the lasting effect of these nursing interventions, longitudinal studies are required at various transition point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n integrated program that can be applied both in clinical settings and local communities through interventions that include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domain development.

**Keywords** : Gastric Cancer Patient, Integrative Review, Nursing Intervention,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Intervention Contents

이 논문은 2021학년도 건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NRF-2019R1G1A1100444)

\*Corresponding Author : Doo Ree Kim(Konyang University)

email: kdr2015@konyang.ac.kr

Received August 16, 2022

Revised September 22,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2019년 암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위암은 전체 11.6%를 차지하며, 이는 1위인 갑상선암, 2위 폐암 다음인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4.1%로 2위, 여성은 8.1%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위암은 남녀 모두에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2019년 5년간 암 환자 생존율은 70.7%로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2010~2014년의 위암의 5년 생존율을 국제 비교하였을 때 미국은 33.1%이며 영국은 20.7%로 우리나라가 68.9%인 것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생존율은 위암 발생률이 비슷한 일본의 60.3%보다도 높다[2]. 2015~2019년 5년 동안 암 환자 생존율은 70.7%로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위암은 조기 검진과 진단, 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암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됨에 따라서 암은 장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3].

암 환자와 가족들은 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대부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4]. 암의 치료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경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된다[5]. 따라서 암 환자들은 암을 진단 받는 순간부터 신체 및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위암 환자의 경우 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한 위절제술 후 회복과정 중에 영양결핍, 덤핑증후군, 체중 감소, 빈혈, 장폐색 등의 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을 경험하며, 항암제 치료의 경우에는 피로, 구내염, 변비, 설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외에 질병의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불안, 우울,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변화도 경험하게 되며[6,7], 치료 종료 후에 가족 기능과 직장 복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직면하게 된다[8].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 한 대상자들은 약 44%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으며[9], 건강 관련 스티그마로 인해 거절, 비난, 평가절하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같이 암 생존자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급성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중재를 통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암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재를 수행해

왔다. 간호중재란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과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처치로, 대상자의 간호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행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11]. 현재까지 국내에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중재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술 후 퇴원교육 프로그램[12], 손 마사지[13], 앱을 활용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1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식이교육[15], 영양교육을 통한 영양 상태 개선[16], 동영상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17] 등이었다. 현재 위암 환자의 급성기부터 수술 후, 퇴원 후까지의 다양한 신체,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간호중재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위암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와 관련된 체계적인 통합적 문헌고찰이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암 환자의 간호중재와 효과에 대해 통합적 문헌고찰을 시행함으로써 추후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재의 내용과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위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국내 위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연구의 내용 및 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암 환자 간호중재와 관련된 논문을 고찰함으로써 위암 환자의 간호중재 내용을 파악하고 중재효과를 확인하여 위암 환자를 위한 통합적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위암 환자 간호중재 관련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Whittemore & Knaf[18]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

의 진행 과정은 문제규정, 문헌검색, 문헌평가, 문헌분석, 문헌제시의 5단계를 차례로 진행하였다.

### 2.2.1 문제규명

본 연구에서 국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관련 논문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국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2) 국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의 내용 및 효과는 어떠한가?

위에서 제기한 위 두 가지 문제규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의 위암 환자 관련 간호중재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간호중재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위암 환자를 위한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2.2 문헌검색전략

본 연구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위암 환자 간호중재 관련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DBpi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위암 환자 프로그램', '위암 환자 간호중재', '위암 환자 간호' 등을 사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문헌검색의 시점은 2021년 6월이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검색한 결과 총 182개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중 위암 중재 관련 논문 43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팀은 최종 분석을 위한 논문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한 결과 중복된 논문, 학술대회 논문, 중재 제공자가 간호사가 아닌 논문을 제외한 후 총 8개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 2.2.3 문헌평가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8개의 논문의 질적 수준은 Arbesman, Scheer와 Lieberman[19]이 개발한 근거 기반 연구수준 5단계로 분석하였다. 질적수준 1단계는 체계적 고찰, 무작위 임상시험설계, 메타분석이 포함되며, 2단계는 두 집단 비무작위연구, 3단계는 단일집단 비무작위 연구, 4단계는 개별시험연구 및 설문조사 연구, 5단계는 사례연구, 질적 연구 및 기술적 고찰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 선정된 논문 중 근거수준 1단계에 포함되는 무작위 연구는 2편(25.0%)이었으며, 근거 수준 2단계의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는 6편(75.0%)이었다(Table 1).

Table 1. Qualitative level of research (n=8)

Level of evidence	Research type	n(%)
I	Systematic Review	0(0.0)
	Meta-analysis	0(0.0)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2(25.0)
II	Two groups non-randomized	6(75.0)
III	One groups non-randomized	0(0.0)
IV	Intervention study	0(0.0)
	Survey	0(0.0)
V	Case study	0(0.0)
	Qualitative study	0(0.0)
	Literature review	0(0.0)

### 2.2.4 문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선정된 문제규명에 맞추어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재의 내용 및 결과의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중재 횟수, 회당 중재 시간, 중재 시점, 중재 방법 등으로 분석하였고, 중재의 내용 및 결과에서는 저자(년), 중재명, 중재 내용, 결과변수 및 결과로 구성하였다.

### 2.2.5 문헌제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규명을 바탕으로 분석한 문헌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 3. 연구결과

최종 분석을 위해 선정된 8개의 문헌을 본 연구에서 제기한 2가지의 문제규명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국내 위암 환자 간호중재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된 8개 논문을 대상으로 중재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도별 분포는 2011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는 5편(62.5%)이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3편(37.5%)이었다. 연구 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가 2편(25.0%),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시차설계는 6편(75.0%)으로 유사 실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중재프로그램은 단일 중재가 6편(75.0%), 복합중재가 2편(25.0%)이었다.

연구대상자는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한 수술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65.0%), 수술 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37.5%)이었다. 수술 전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5편의 연구에서는 내시경적 절제술이 예정된 대상자가 2편(25.0%)이었으며, 위절제술이 예정된 대상자는 3편(37.5%)이었다. 수술 후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편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외래 진료를 받는 대상자가 1편(12.5%), 수술 후 항암화학 치료 전인 대상자가 1편(12.5%), 수술 후 경구 항암화학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12.5%)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포함한 연구대상자 수는 50명 미만인 2편(25.0%), 50명 이상 100명 이하가 4편(50.0%), 100명이 넘는 경우가 2편(25.0%)이었다. 중재 빈도는 1회가 3편(37.5%)이었으며, 2~4회가 2편(25.0%), 5회 이상이 3편(37.5%)이었다. 회당 중재 시간은 30분 미만이 2편(25.0%)이었으며, 30분 이상이 6편(75.0%)이었다. 중재 시점은 수술 전 중재가 4편(50.0%), 수술 후 중재가 3편(37.5%)이었으며, 수술 전부터 수술 후에 이르는 연속적인 중재는 1편(12.5%)이었다. 중재 방법은 프로그램마다 중복으로 체크 하였을 때 면대면 교육이 7편(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교육이 3편(37.5%), 동영상 자료가 2편(25.0%), 전화 상담이 2편(25.0%)이었으며, 문자 메시지, 리플릿, 이메일, 마사지가 각각 1편(12.5%)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ention studies

Item	Categories	n(%)
Publication year	< 2015 yr	5(62.5)
	≥ 2015 yr	3(37.5)
Study design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2(25.0)
	Two groups non-randomized	6(75.0)
Type of intervention	Single	6(75.0)
	Complex	2(25.0)
Study subjects	Pre-operation	5(65.5)
	Post operation	3(37.5)
	Post operation, follow-up	1(12.5)
	Pre-chemotherapy	1(12.5)
	Inter-chemotherapy	1(12.5)
Sample size	< 50	2(25.0)
	50-100	4(50.0)
	> 100	2(25.0)
Frequency of intervention	1	3(37.5)
	2-4	2(25.0)
	≥5	3(37.5)
Hours of intervention/ session	<30 min	2(25.0)
	≥30 min	6(75.0)

Measure points	Pre-operation intervention	4(50.0)
	Post operation intervention	3(37.5)
	Pre & post operation intervention	1(12.5)
Intervention method (duplicate response)	Face-to-face training	7(87.5)
	Tablet pc	3(37.5)
	Video material	2(25.0)
	Phone consultation	2(25.0)
	Text chat	1(12.5)
	Leaflet	1(12.5)
	E-mail	1(12.5)
	Massage	1(12.5)

### 3.2 국내 위암 환자 간호중재의 내용 및 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8개 논문의 위암 환자 간호 중재 연구의 중재 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중재 내용은 위암 관련 정보의 소개, 수술 전후의 준비사항,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대처방안, 치료과정 및 퇴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6편(75.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위암 수술 후의 식이 과정에 대한 영양교육, 수술 후 운동방법 및 마사지 등의 신체적 중재가 있었으며,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정서적 중재는 1편(12.5%)이었다. 국내 위암 환자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결과, 위암 환자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결과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불편감, 통증, 상태 불안, 피로는 감소 되었고, 자가간호지식,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도, 자가간호 수행, 간호교육 만족도,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면역 반응, 영양 상태 및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프로그램은 단일 중재와 복합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중재 내용은 정보제공, 영양교육, 운동요법, 마사지, 정서적 지지 등으로 나타났다. 단일 중재는 총 6편으로 정보제공의 단일 중재연구는 총 4편이었으며, 운동요법, 마사지를 제공하는 단일 중재는 각각 한편이었다. 복합 중재는 2편으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 시행하는 연구와 정보제공과 영양 및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연구 각각 한편이었다.

정보제공 위주의 중재연구는 주로 수술 전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보제공 위주의 단일 중재 연구 중 2편은 조기위암을 진단받고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Kim과 Kim[20]은 수술 전후의 준비사항 및 수술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대처방안, 식이 처방과 주의사항, 치료과정 및 퇴원에 관한 내용을 태블릿 PC를 이용해 5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교육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 1:1로 답변하였다. 교육 후 대상자의 신체적 불편감, 상

태 불안, 불확실성 및 간호교육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상태 불안과 불확실성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목의 이물감, 복부팽만감, 복부 통증 등의 신체적 불편감이 감소 되어 안위 증진을 도왔고 간호교육 만족도가 향상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Kwon과 Lee[17]는 수술의 준비과정, 수술방법, 수술 후 관찰해야 하는 내용과 각각의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현실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의 환자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동영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대상자의

수술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재를 제공하였다. 15분간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후 교육간호사가 개별 면담 하였다. 시뮬레이션 교육 후 상태 불안, 주관적 불편감 및 객관적 불편감 정도가 기존의 유인물 제공을 통한 정보제공 교육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제공 위주의 단일 중재연구 중 Yoon 등[21]은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절제술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수술 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질병에 대한 설명, 치료계획, 수술 환경에 대한 안내, 수술방법, 전신

Table 3.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for gastric cancer patients

(n=8)

Author(year)	Program name	Intervention contents		Outcome variables(*significant)
Kim & Kim (2018)	Video training using tablet PC	Preparations before and after surgery, the procedure, dietary prescription and Precautions, Possible side effects and countermeasures; Treatment and discharge	Provide information	Physical discomfort*(↓) Uncertainty State anxiety Nursing Education Satisfaction*(↑)
Yoon, etc. (2016)	Standardized preoperative education program	Description of the disease, treatment plan, guidance on the surgical environment, surgical method, possible complications after anesthesia, post-operative recovery process and self-care strategy education	Provide information	Self-care knowledge*(↑) Self-care*(↑) Physical recovery (pain)*(↓) Satisfaction*(↑)
Hong, etc. (2016)	Patient navigation program	Introduction of resources available in the hospital, complicated schedule adjustment, disease information,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self-management before treatment, psychological support	Provide information Emotional support	Anxiety*(↓) Uncertainty Resilience
Kim & Tae (2014)	Self-efficacy promotion program using the web	Introduction to gastric cancer, follow-up care after discharge, nursing for gastric cancer patients, information on gastric cancer, Love Sharing Center	Provide information	Self-efficacy*(↑) Self-care*(↑) Nutritional status*(↑) Quality of life*(↑)
Kwon & Lee (2013)	Video simulation training program	Preparation process and surgical method for gastroscopic surgery, post-operative observation method, rationale and precautions for each procedure Provision of treatment plan data, overall treatment plan, exercise, treatment, medication explanation, diet explanation, dressing treatment	Provide information	Temperament anxiety State anxiety*(↓) Objective discomfort*(↓) Subjective discomfort*(↓)
Kim, etc. (2013)	Standard medical guidelines training	Preparation process and surgical method for gastroscopic surgery, post-operative observation method, rationale and precautions for each procedure Provision of treatment plan data, overall treatment plan, exercise, treatment, medication explanation, diet explanation, dressing treatment	Provide information Nutrition education Exercise	Understanding the disease*(↑) Sufficient description of the disease before surgery Understanding the treatment process*(↑) Patient Satisfaction*(↑)
Choi & Kang (2012)	Home exercise program	Exercise precautions and methods, warm-up exercise, main exercise (medium-intensity walking exercise), cool-down exercise	Exercise	Fatigue*(↓) Immune response*(↑) State anxiety*(↓) Quality of life*(↑)
Han & Lee (2012)	Back massage	Neck, Shoulder, Back, Waist(Effleurage, Kneading, Petrissage, Friction etc)	Massage	Pain*(↓) State anxiety Sleep quality*(↑)

마취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수술 후 회복과정과 자가간호 전략에 관한 내용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교육하고, 항색전 스타킹, 폐활량계 재호흡기 등의 실물모형을 가지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면대면 교육을 시행 후 리플릿을 제공하였다. 교육 후 대상자의 자가간호 지식 및 수행, 환자만족도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고, 신체 회복 증 통증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폐 합병증 및 위장관운동의 회복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위주의 단일 중재연구 중 Kim과 Tae[14]는 위암 진단하에 부분절제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암 관련 정보의 소개, 퇴원 후 추후관리, 위암 환자의 간호, 사랑나눔터 등의 주요영역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수술 후와 퇴원 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웹을 통한 교육, 개별 면담,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자가간호 수행, 영양 상태 및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운동에 대한 단일 중재로는 수술 후 경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운동 프로그램[22]을 적용하였다. 운동의 주의사항 및 방법, 준비운동, 본 운동(중강도의 걷기 운동), 정리운동에 대한 개별교육을 시행하고 8주 동안 주 1회 전화통화, 문자상담의 중재를 제공하였다. 중재 적용 후 피로, 상태 불안은 감소하였고 면역 반응(자연살해세포)과 삶의 질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등 마사지는 단일 중재로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매일 10분간 총 5일 동안 등 마사지를 실시하였다[23]. 대상자를 침대에 앉도록 한 후 목, 어깨, 등, 허리 부위를 경찰법, 유날법, 지압법 등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중재 적용 후 대상자의 통증 정도, 수면의 질, 상태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증 정도는 낮아지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태 불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중재에서는 정보제공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 또는 영양교육 및 운동방법이 시행되었다. Hong 등[24]의 연구에서는 정보제공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복합중재를 적용하였는데, 위암을 처음 진단받고 수술 대기 기간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병원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소개, 질환 정보, 치료 전 자가관리, 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 복잡한 일정조정, 정서적 지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수술 전 총 3회 면대면 교육

이 이루어졌다. 중재 결과 대상자의 불안은 감소되었으나, 불확실성 및 회복 탄력성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의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책자 및 위암 생존자의 격려 동영상을 제공하고, 치료 후 회복 및 빠른 복귀를 격려하는 중재를 제공하였다.

Kim 등[25]의 연구에서는 정보제공과 더불어 영양교육과 운동요법을 제공하는 복합중재를 수행하였는데,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 지침을 기반으로 진료계획서 자료 제공, 전반적인 치료 계획, 처치, 투약에 대한 설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교육, 운동방법을 교육하였다. 수술 전부터 퇴원 시까지 연속적인 중재가 이루어졌다. 중재 결과 질병에 대한 이해정도 및 환자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수술 전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정도와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8개 논문의 위암 환자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문헌분석 결과, 위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의 급성기 때 대부분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위암 생존율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2] 위암 환자로 살아가게 되는 기간이 증가 되어 퇴원 이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위암 간호중재의 대부분은 통증, 피로, 폐 합병증 등의 신체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위암 환자들은 암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치료 및 예후에 대한 불안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20].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연구가 한편이었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책자를 제공하거나, 위암 생존자의 격려 동영상을 제공하고, 치료 후의 회복 및 빠른 복귀를 위해 격려하는 중재에 그쳤다[24]. 따라서 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위암 환자를 위해 호흡 치료 및 명상 등 정서적 지지의 구체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은 진단 시점부터 퇴원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재 횟수도 일회성의 중재가 4편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재 시간도 회당 15분 이하의 중재가 2

편이었는데[20,23], 15분 이하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연구에서는 중재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상태 불안 및 불확실성 감소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재 시에는 30분 이상의 충분한 중재 시간이 필요하며, 회복기 동안의 추가적인 교육과 교육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소책자 제공 등을 통해 지속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회성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 퇴원 후 등의 전환 시점에 따른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요구된다.

질환 정보, 치료과정, 수술방법에 대한 교육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동영상 및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환자는 원하는 만큼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교육 이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일대일 개별 면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17,20]. 이렇듯 동영상 교육과 개별 면담을 접목한 중재 방법은 환자로 하여금 이해정도에 따라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자에게는 반복교육으로 인한 피로도는 낮추며 개별교육을 통해 환자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이다. 교육은 집단 교육보다는 개별 교육이 교육의 효과를 증진 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26] 집단 교육에서는 대상자의 개별 이해수준 및 치료 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교육 받을 수 없어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7].

교육내용은 주로 위암과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장폐색 및 폐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시범을 보이고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습 중심의 실제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21]. 위암 환자에게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덤핑증후군이 흔히 올 수 있으며 이는 영양 불균형의 위험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음식섭취의 중요성과 방법, 덤핑증후군 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수술 전부터 실제적인 실습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28]. 위암 환자는 퇴원 후 덤핑증후군으로 인한 식후 불편감 및 소량씩 음식을 섭취하게 됨에 따른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있고,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퇴원 후의 영양교육 및 정서적 지지의 중재가 필요하다.

Kim 등[25] 연구에서는 간호사인 교육자의 경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간호사가 교육자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25,29]. 환자 교육 및 간호사 교육을 전문간호사에게 일임하게 되면 일반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게 되어 직접 간호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표준화되고 전문적인 교육내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교육만족도는 증가하며, 교육자로서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장 및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9,30].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추후 위암 환자를 위한 통합적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연구를 검색한 결과, 최종 8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8편의 논문 중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시차설계가 6편,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가 2편이었다. 중재프로그램으로는 단일 중재가 6편, 복합중재가 2편이었으며, 중재 내용은 질환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대부분이었고, 영양교육, 운동요법, 마사지, 정서적 지지 중재가 시행되었다. 국내 위암 환자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결과, 신체적 불편감, 통증, 상태 불안, 피로는 감소 되었고, 자가간호지식,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도, 자가간호수행, 간호교육 만족도,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면역 반응, 영양 상태 및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중재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체계적인 문헌고찰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다양한 간호중재 효과를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중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위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 퇴원 후에 이르는 중단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중재 내용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중재 내용을 개발하여 임상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위암의 간호중재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은 국내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로도 확대하여 통합적 문헌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Cancer Information Service Website [Internet]. 2021[updated 2021 Dec 30; cited 2022 JUL 6]. Available From: <https://www.cancer.go.kr/lay1/SIT639C641/contents.do>
- [2] C. Allemani, T. Matsuda, V. Di Carlo, R. Harewood, M. Matz, M. Nikšić, "Global Surveillance of Trends in Cancer Survival 2000-14 (CONCORD-3): Analysis of Individual Records for 37,513,025 Patients Diagnosed with One of 18 Cancers from 322 Population-based Registries in 71 Countries", *Lancet*, Vol.391, No.10125, pp.1023-1075, March, 2018.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17\)33326-3](https://doi.org/10.1016/S0140-6736(17)33326-3)
- [3] P. J. Oh, H. J. Choi, "The Effect of Patient Education Interventions on Distress, Self-Care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of Oncology Patients: A Meta-Analysis", *Asian Oncology Nursing*, Vol.12, No.4, pp.257-266, 2012. DOI: <https://doi.org/10.5388/aon.2012.12.4.257>
- [4] C. Bruce, C. H. Köhne, R. A. Audisio, "Treatment of advanced colorectal cancer in the elderly", *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EJSO)*, Vol.33, pp.S84-S87, 2007. DOI: <https://doi.org/10.1016/j.ejso.2007.09.015>
- [5] K. Horner, E. J. Ludman, R. Mccorkle, E. Canfield., L. Flaherty, J. Min, E. H. Wagner, "An oncology nurse navigator program designed to eliminate gaps in early cancer care",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Vol.17, No.1, 2013. DOI: <https://doi.org/10.1188/13.cjon.43-48>
- [6] K. E. Lee, Y. G. Son, S. W. Ryu, "Validation of Geriatric Nutritional Risk Index and Percent Weight Loss as a Predictor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fter Gastrectomy in Elderly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Vol.6, No.1, pp.30-36, 2014.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99971133>
- [7] J. H. Kim,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in Stomach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4, No.6, pp.588-596, 2012. DOI: <https://doi.org/10.7475/kjan.2012.24.6.588>
- [8] B. Y. Jang, J. Y. Park, "Subjective Health Status, Mental Health, and Cancer Stigma in Long-term Cancer Survivors after Gastric Surgery", *Asian Oncology Nursing*, Vol.18, No.2, pp.86-93, 2018. DOI: <https://doi.org/10.5388/aon.2018.18.2.86>
- [9] K. H. Han, I. C Hwang, S. Kim, J. M. Bae, Y. W. Kim, K. W. Ryu, Y. H. Yun,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disease-free stomach cancer survivors",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Vol.46, No.4, pp.511-522, 2013. DOI: <https://doi.org/10.1016/j.jpainsymman.2012.10.234>
- [10] J. K. Catald, R. Slaughter, T. M.Jahan, V. L. Pongquan, W. J. Hwang, "Measuring stigma in people with lung cancer: psychometric testing of the cataldo lung cancer stigma scale", *In Oncology nursing forum*, NIH Public Access, Vol.38, No.1, pp.E46. January, 2011. DOI: <https://doi.org/10.1188%2F11.ONF.E46-E54>
- [11] J. C. McCloskey, G. M. Bulechek,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NIC)", *In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NIC)*, pp.xii-911, 2000.
- [12] I. K. Kwon, H. E. Park, E. O. Lee, "Effect of Discharge Education Program of Stomach Cancer Patient on Patient's and Caregiver's Coping and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6, No.2, pp.308-323, 1994.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2033257>
- [13] M. H. Sung, S. A. Lee, J. S. Sim, "The Effects of Aromatherapy Hands Massage on the Preoperative Anxiety of Stomach Canc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18, No.5, pp.709-717, 2006.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99897756>
- [14] M. Y. Kim, Y. S. Ta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Web-based Self-Efficacy Promoting Program on Stomach Cancer Patients with Gastrectomy",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7, pp.51-65, 2015.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5460721>
- [15] M. O. Kim, U. K. Kim, E. Y. Cho, "The Effects of Multimedia Diet Education on Nutritional Status in Stomach Neoplasms Patient with Gastrectomy",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45-59, 2008.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75036755>
- [16] S. J. Cha, Y. S. Choi, J. W. Shin, Y. S. Park, M. S. Ko, J. W. Yoon, J. E. Chang, "Improving Nutritional Status through Nutrition Education for Gastric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Gastrectom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Kor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pp.71-72, 2011.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99903637>
- [17] S. Y. Kwon, J. Lee,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Educational Program for Gastroendoscopic Surgery Pati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5, No.5, pp.494-503,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3.25.5.494>
- [18] R. Whittemore, K. Knafl, "The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2, No.5, pp.546-553, 2005.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5.03621.x>
- [19] M. Arbesman, J. Scheer, D. Lieberman, "Using AOTA's critically appraised topic (cat) and critically appraised paper (cap) series to link evidence to practice", *OT practice*, Vol.13, No.12, pp.18-22, 2008. Retrieved From: [https://hsrc.himmelfarb.gwu.edu/sphhs\\_prev\\_facpubs/636](https://hsrc.himmelfarb.gwu.edu/sphhs_prev_facpubs/636)
- [20] M. K. Kim, J. Kim, "The Effects of Educational Video Program Delivered Using Tablet PC on Physical Discomfort, Uncertainty, State Anxiety, and Nursing Education Satisfaction among Early Gastric Cancer Patients Undergoing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4, No.2, pp.147-158, 2018.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18.24.2.147>

- [21] M. A. Yun, S. S. Kim, S. Kim, S. H. Noh, "The Effects of a Standardized Preoperative Education Program on Stomach Cancer Patients undergoing Gastrectomy", *Asian Oncology Nursing*, Vol.16, No.2, pp.85-93, 2016. DOI: <http://dx.doi.org/10.5388/aon.2016.16.2.85>
- [22] J. Y. Choi, H. S. Kang, "Effects of a Home-based Exercise Program for Patients with Stomach Cancer Receiving Oral Chemotherapy after Surge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2, No.1, pp.95-104, 2012.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95>
- [23] M. S. Han, K. Y. Lee, "The Effect of Back Massage on Degree of Pain, State Anxiety and Quality of Sleep of Postoperative Patients with Gastrectomy", *Asian Oncology Nursing*, Vol.12, No.1, pp.69-76, 2012. DOI: <http://dx.doi.org/10.5388/aon.2012.12.1.69>
- [24] Y. S. Hong, J. Y. Park, S. H. Kim, S. A. Kim, Y. H. Kim, "Effects of a Navig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Gastric Canc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sian Oncology Nursing*, Vol.16, No.3, pp.132-138, 2016. DOI: <http://dx.doi.org/10.5388/aon.2016.16.3.132>
- [25] J. H. Kim, U. D. Min, S. S. Kim, "Evaluation of the Patient s Satisfaction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applied to the Critical Pathway",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38, No.2, pp.59-63, 2013.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0189664>
- [26] M. Y. Kim, W. O. Kim, S. S. Han, "Effects of Individual and Group Education Programs on Coping and Self-care Behaviors in Cancer Pati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0, No.1, 2014.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0045476>
- [27] H. Y. Jeong, M. S. Kwon, "The Effects on Self-care Knowledge and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for Chemotherapy", *Asian Oncology Nursing*, Vol.8, No.1, pp.8-16, 2008.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76267771>
- [28] Y. Jung, J. Le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on the Eating Habits and Quality of Life of Gastric Cancer Outpatients Undergoing Gastrectom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Vol.23, No.2, pp.162-173, 2018. DOI: <https://doi.org/10.5720/kjcn.2018.23.2.162>
- [29] H. K. Kim, Y. S. Yoo, "Effects of the Advanced Practice Nurse-led Psychoeducational Program for Colorectal Cancer Surviv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52, No.3, pp.245-260, 2022. DOI: <https://doi.org/10.4040/jkan.21207>
- [30] M. G. Kim, E. Y. Park,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Nursing Counseling for Gastric Cancer Patients Who have Undergone Operation", *Asian Oncology Nursing*, Vol.22, No.2, pp.84-92, 2022. DOI: <https://doi.org/10.5388/aon.2022.22.2.84>

임 호 남(HyoNam Lim)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 및 노인간호, 암환자, 웰다잉, 웰에이징

이 미 향(Mi Hyang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환자안전, 감염관리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치매, 노인, 삶의 질, 극복력

이 경 화(Kyunghwa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9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암생존자 간호, 압고위험대상자 간호, 증상관리, 건강관련 삶의 질

---

양 선 이(Sun-Yi Yang)

[정회원]



- 2006년 12월 : Hawaii Pacific University, Science in Nursing (BSN)
- 2010년 5월 : Hawaii Pacific University, Science in Nursing (MSN-FNP)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신생아 간호